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CPTED 사업 박차

대전시 도시주택국 도시경관과
2019. 7. 8.

인천시 도시경관과
2019. 7. 29.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기획팀
2019. 7. 29.

대전시, CPTED 도입을 통한 안전보행로 조성

대전시가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네거리 굴다리에 CPTED 기법을 도입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민안전보행로 조성사업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말까지 보행로 내부 안심시설인 CCTV, 안심벨, 반사경, 고보조명 등을 설치하고 출입구 양측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2018년 공공서비스디자인 공모전 대상작으로 시민이 제안한 ‘안심 빛 나무’를 설계에 반영하게 된다. 안심 빛 나무 디자인은 CPTED 적용은 물론 신탄진 지역의 과거 나무터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신탄진만이 가질 수 있는 개성적인 디자인, 심리적이고 실제적인 안정감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추진

인천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립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에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혼재하는 인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유형별로 범죄 행태를 분석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통학로·출퇴근길·골목길 등에 대한 두려움지도와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공공시설물과 공공장소는 물론 모든 도시개발사업과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노후공간 등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조사하고, 범죄예방디자인 지원 대상을 정해 3년(2020~2022) 동안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제주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지역공동체 사업 실시

제주도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지역공동체(CPTED)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용담2동 제주시초등학교 일대에 ‘용담하늘길’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담하늘길 사업에는 태양광 센서등, 로고젝터, 비상시 119관제센터와 연결되는 안심비상벨, CCTV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마을지도, 바둑안내사인, 안내판 등을 통해 마을의 정체성 회복을 도모하고 벽면도색과 간이침터의자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안심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마을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벽화타일 만들기를 진행하고 노후된 벽면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대전시의 안심 빛 나무 조성계획

출처: 대전시, (2019). 신탄진 굴다리에 셉테드 도입, 안전보행로 조성공사 착공.
7월 8일 보도자료.